

# GMP 귀국 보고서

## 인적사항

|     |                   |    |          |
|-----|-------------------|----|----------|
| 성명  | 이진우               | 학번 | ████████ |
| 이메일 | ledin00@naver.com |    |          |

|      |                                             |                    |
|------|---------------------------------------------|--------------------|
| 대학원명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뉴욕주립대학교) / MPA | (국가) 미국            |
| 기 간  | 2018.1.2-12.29                              | [귀국일:2018년12월29 일] |
| 첨부서류 | GMP 2년차 보고서                                 |                    |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2 월 29 일

신 청 인 : 이진우

이진우  
(인)

##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뉴욕주립대학교는 뉴욕주 알바니(Albany)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바니는 겨울이 길고 추운 편입니다. 3월까지도 추위가 계속되며 5월이 되어야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여 꽤 덥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만 알바니는 위도가 높은 쪽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는 여름에 덜 덥습니다. 여름에는 미국 중부지역에만 가도 완전 무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알바니는 미 동부에서도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동부 주요 도시와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보스턴, 뉴욕시 등이 자동차로 3시간이면 갈 수 있고 워싱턴도 6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뉴욕시나 워싱턴은 버스, 기차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와도 인접해 있어 몬트리올(3시간 반), 토론토(5시간), 퀘벡(6시간) 등도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알바니까지 가는 직항은 없습니다. 디트로이트나 아틀란타를 경유하여 알바니 공항으로 오게 됩니다. 뉴욕 JFK 공항으로 직항으로 와서 렌트카나 개인 셔틀로 알바니까지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디트로이트, 아틀란타 두 공항 모두 경유해보았는데 어느 쪽을 이용하건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단, 미국으로 입국 시에는 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경유 시간을 너무 짧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입국 심사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집과 자동차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였고 알바니에 도착해서 집과 중고차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일주일 정도 호텔에 머물면서 렌터카를 이용해서 집과 중고차를 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업타운에 있는 리젠시 파크(Regency park)라는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가격은 비싼 편이었지만 시설, 주변 경관 등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리젠시 파크 맞은 편에 헤리티지(Heritage)에 한국에서 유학오신 분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이 주변은 길더랜드(Guilderland)라는 타운인데 학군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세나 장보기 등등 물가가 대도시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저는 업타운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던 거 같습니다. 집 주변에 YMCA센터에 운동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길더랜드 도서관도 있어서 과제 수행이나 책 읽거나 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업타운 캠퍼스에도 수영장 등 운동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알바니의 MPA 과정은 뉴욕 주정부에서 일할 공무원을 육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이나 메모 작성법, 프레젠테이션 등 실무적이고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다룹니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

무적인 것에 치중한다는 느낌도 받지만 수업을 듣다 보면 주류 행정학에서 다루는 이론들은 대부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MPA 학생들 중에는 뉴욕 주 정부나 비영리단체(non-profit)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으며 (KDI에서 갈 경우 면제됩니다), 인턴십을 통해 주정부나 비영리단체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수들도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교 방침이 학생 지도를 강조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학업의 성취도는 본인에게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관심을 갖고 공부에 집중한다면 수업 교과과정이나 담당 교수 지도 하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KDI 연계과정으로 입학할 경우 첫 학기에 4과목(14학점), 두 번째 학기에 4과목(11학점)을 수강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KDI에서 수료한 과목으로 학점을 인정 받습니다. 알바니에서 수강하는 과목은 대부분 코어 과목들이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두 번째 학기에 한 과목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수업이 토론, 개별 과제, 그룹 과제 등을 섞어서 진행하며 그룹으로 진행되는 과제가 KDI보다는 많습니다.

과제는 에세이를 쓰는 것이 많은데 Data, model, decision2 과목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과목은 수업도 lab에서 개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진행하고 과제도 엑셀, 엑세스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합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각각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배정된 리딩이나 교재를 읽고 수업 시간에 강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코어 과목의 경우는 거의 매주 과제가 있어서 매주 일정 시간은 과제를 하는 시간으로 할당하고 생활하였습니다. 저는 봄학기 입학하여 가을학기에 졸업하였는데 여름학기는 없었습니다.

###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아파트는 업타운이 조금 비싼 편이고 다운타운으로 가면서 조금 싼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혼자 생활을 하는 경우 좀 더 싼 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비용을 절약하는 한 방법인 거 같습니다. 알바니는 중소도시지만 대형 마트들이 많이 있어서 장보기가 좋습니다. 월마트, 프라이스 차퍼(Price Chopper) 등 저렴한 마트도 있고 트레이더 조(Trader Joe's), 홀 푸드(Whole foods)와 같이 유기농을 전문으로 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채소나 고기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할 경우 집에서 해먹는 거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서비스의 경우 팁을 줘야 해서 레스토랑, 미용실, 택시 등을 이용 시 팁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저는 가을학기에 교양 과목으로 음악 수업(chamber ensemble)을 수강하였는데 수강생들이 모여서 악기를 합주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음악도 즐기고 연주회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동아리가 분야별로 있으며 본인의 취미나 관심 분야에 따라서 흥미로운 활동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대부분 동아리가 학부생 중심인 거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업타운 캠퍼스에서 각종 클래식 콘서트와 대학 스포츠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경우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 같습니다.

알바니는 뉴욕주 중간 지점에 있어서 동부의 주요 명소를 다니기가 편리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천섬(싸우전드 아일랜드), 보스턴, 뉴욕시, 워싱턴 등을 자동차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이러한 명소들도 구경하고 야구 경기(뉴욕 양키스)나 뉴욕시의 박물관 등 문화 생활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이나 예술 구경거리는 뉴욕시가 가장 풍부하지만 보스턴 박물관, Mass Moca(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현대 미술관), Clark Museum 등도 좋았습니다. 미술을 몰라도 가이드를 통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 같았습니다.

####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 방식 등을 조금이나마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개인주의 문화라고는 하지만 친절한 사람들도 많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조금 지나니까 적응도 되고 업타운 생활 환경이 좋아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통해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토론해보고 했던 점들이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알바니는 합격 발표가 조금 늦게 나는 거 같습니다. 저는 11월 초에 합격 통지를 받아서 11월 말에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조금 늦어도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비자 신청을 하였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여행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F1 비자로 미국으로 온 뒤에는 업타운 캠퍼스에 있는 국제학생센터(ISSS)에서 I20 서류에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Travel signature라고 하는데 이 싸인이 있어야 미국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동안 미국에만 계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실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GMP 2년 차는 해외에서 학업 뿐만 아니라 과외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즐거운 유학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